

# '낮엔 공부 밤엔 운동'

## ■ KIA 이대진 고졸 15년만에 사이버대 진학

KIA타이거즈의 이대진(사진)이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올 시즌 '장학생'과 '10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된다.

이대진은 지난 22일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학점을 따는 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에 합격, 93년 진흥고를 졸업한 지 15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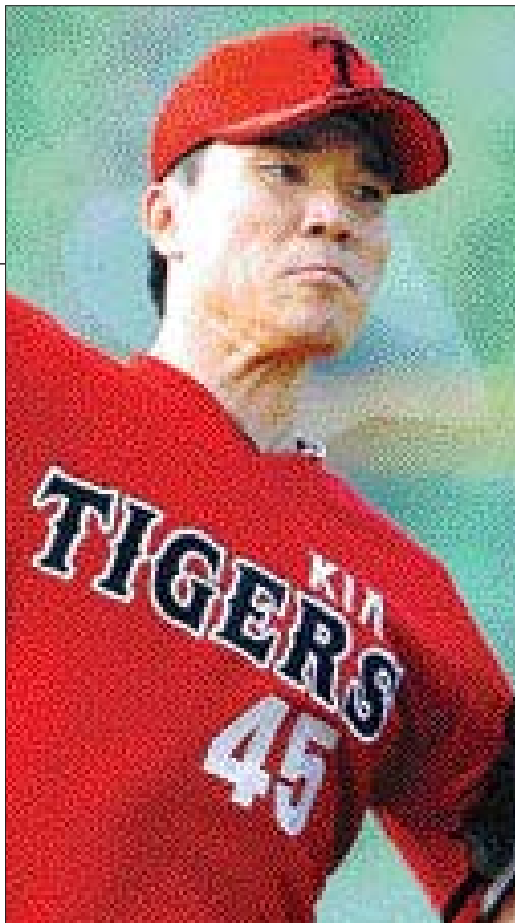
부인 김지영씨로부터 합격소식을 전해들은 이대진은 "은퇴 이후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부인의 권유로 실용영어학과라는 나에게 맞는 과를 찾게 돼 진학하게 됐다"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던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꼭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이 된 이대진은 낮에는 인터넷 강의를 받고, 밤에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경기에 뛰면서 '주독야운(晝讀夜運)'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미국 생활을 했던 서재용, 최경환 등이 과외 선생님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장학생 이대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이대진은 오랜 목표였던 대학진학을 이룬 만큼 '10승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팜에서 어깨 보강 운동과 체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이대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 없이 풀 시즌을 치르는 것으로, 꾸준히



# "10승 장학생 될래요"

등한다면 10승을 할 자신이 있다. 힘들었던 재활의 순간을 떠올리며 올해를 재도약의 해로 삼겠다"고 야구 선수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에이스 중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라는 의미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대진은 90년 말 마운드를 평정했던 대투수였다. 10타자 연속 삼진이 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는 1999년 2월 하와이 스프링캠프에서 어깨 통증을 시작으로 세 번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2000년 12월 첫 수술을 받은 뒤 복귀와 재활을 반복하며 2003, 2004, 2006년 8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게 전부였던 만큼 팬들조차 그가 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006년 3년만의 복귀전에서 SK의 박재홍에게 홈런을 맞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던 그를 보면서 많은 팬과 관계자들은 거기까지 한계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지난해 시즌 절반을 재활하는 데 보내야 했지만 이대진은 17경기에 나서 7승 6패 4.11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왕의 귀환'을 알렸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재기였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팬들에게 이대진은 영원한 에이스다. 평소 성실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기로 이름 나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선배다. 그를 알고 있는 이들은 장학생 이대진의 모습도 쉽게 그려볼 수 있다.

'2008학번 새내기' 이대진은 "지난해에는 초반 페이스가 좋아 스피드에 대한 욕심을 부렸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컨트롤 위주의 피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체력적 문제와 함께 부상이 찾아와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만족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시즌을 밀거를 삼아 10승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에리사를 IOC위원으로"

## 국내 여성체육인 168명 서명 대한체육회에 추천서 전달



<이에리사 선수추진>

여성 체육인들이 국내 첫 여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을 탄생시키기 위해 모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이은경씨 등 국제대회 여성 메달리스트 20여 명은 24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이에리사(54) 태릉선수촌장을 IOC 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김정길 KOC 위원장에게 여성 메달리스트 168명의 서명이 담긴 추천서를 전달했다.

이은경씨는 "현재 IOC 위원 115명 중 여성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IOC가 여성위원을 20%(23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작년 3월 IOC의 '여성

과 스포츠 트로피'를 탄 적이 있는 이 선수촌장을 IOC 위원으로 적극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기자회견은 여권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게 아니라 IOC의 최근 동향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향후 남성 메달리스트 등의 서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길 KOC 위원장은 추천서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한국은 선수출신 여성이 IOC위원에 도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 선수촌장 추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OC는 29일 상임이사회, 내달 27일 상임위원 총회 등을 앞두고 있어 이 자리에서 이에리사 선수촌장 등의 추천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여성 메달리스트, 이에리사 태릉선수촌장 IOC 위원 추천' 기자회견에서 전이경 IOC 선수분과위원이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에게 여성 메달리스트 167명이 서명한 추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승엽 내달부터 팀 스프링캠프 합류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주포 이승엽(32)이 27일 국내 훈련을 마치고 29일께 일본으로 넘어가 2월1일부터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스프링캠프를 준비한다.

지난해 10월 왼손 엄지 인대 재건 수술을 한 이승엽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 세진헬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한 기술 훈련을 한 달간 치러왔다.

4년째 겨울마다 이승엽의 훈련을 지도해온 오창훈 세진헬스 관장은 "엄지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에 근육 훈련량은 작년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오다 보니 전체 운동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엽이가 훈련 방법을 잘 알 뿐더러 예년보다 많은 휴식을 취해 컨디션은 더욱

좋다. 여유도 넘치는 것 같다. 현재 몸무게는 95kg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엽은 7일부터 방방이를 잡고 타격 훈련을 시작했는데 오 관장은 현재 티 베팅을 때리는데 엄지에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요미우리는 전담 트레이너를 주축 대구에 파견, 이승엽의 엄지 상태와 컨디션 등을 점검했다. 이승엽은 27일 오전 대구에서 훈련을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상경할 예정이다.

동계 훈련을 통해 수술 부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낸 이승엽은 다음달 1일 미야자키 선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투수들이 직접 던져 주는 볼을 때리는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마리아 샤라포바가 24일 호주 멜버른 파크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계속된 호주오픈테니스 4강전 엘레나 안코비치(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강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샤라포바가 2-0으로 승리해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 박성화호 전훈 첫 승 스페인 2부리그 말라가 1-0 제압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스페인 프로축구 세군다 디비전(2부리그) 말라가CF와 평가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전지훈련지인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치러진 말라가CF와 3차 평가전에서 수비수 강민수(전북)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앞서 엘체CF(스페인 2부)와 2-2 무승부, FC투스(스위스 1부)과 0-0 무승부로 두 경기를 내리 비긴 올림픽대표팀은 말라가CF를 이겨 전지훈련 평가전에서 합격해 첫 승리를 따냈다.

한동원(성남)-서동현(수원) 투톱을 앞세운 한국은 전반 15분 조영철(호르마FC)의 오른쪽 코너킥이 수비수를 맞고 흐르자 공격에 가담한 강민수가 골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강민수는 뒤 이어 나온 볼을 다시 헤딩으로 밀어넣어 결승골을 뽑아냈다.

## 이영표 뛰는 토트넘 첼시와 칼링컵 결승

이영표(31)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강호 첼시와 리그컵대회인 칼링컵 우승을 다투게 됐다.

지난 대회 우승팀 첼시는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파크에서 원정경기로 치러진 2007-2008 잉글랜드 칼링컵 준결승 2차전에서 후반 24분 터진 조 콜의 결승골로 홈팀 에버턴을 1-0으로 제압했다. 지난 1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던 첼시는 1, 2차전 합계 3-1로 에버턴을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첼시는 아스널을 상대로 9년 만에 승리를 맛보며 결승에 오른 토트넘과 다음달 24일 뉴웰블리 스타디움에서 대회 2회 연속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첼시는 다섯번째, 그리고 토트넘은 1998-1999 시즌 우승 이후 10년 만에 네 번째 리그컵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뒤 결국 후반 24분 조 콜의 오른발에서 승부가 갈렸다. 플로랑 말루다의 패스를 받은 조 콜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어 에버턴을 격멸시켰다.

## 샤라포바-이바노비치 패권 다툼

호주오픈테니스 결승 진출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5위·러시아)와 아나 이바노비치(3위·세르비아) 두 동구권 미녀가 총상금 171억원이 걸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패권을 놓고 맞붙는다.

4)로 역전승을 거두고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서 두 번째로 메이저대회 결승에 올랐다. 8강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쥐스틴 에빙(1위·벨기에)을 꺾고 큰 고비를 넘긴 샤라포바는 전날까지 3승1패로 앞서 있던 안코비치를 상대로 여유있는 경기를 펼쳐 1시간19분만에 게임을 마쳤다.

샤라포바는 효과적인 서브에 이은 네트 어프로치로 안코비치를 압박했다. 샤라포바는 17차례 네트 공격을 시도, 16번이나 성공시켰다.

골프·연도 회원권개별 전문기업

**특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애틀	골프장	시애틀
관 주	3,450	총 금액	1,700
날당 주	4,400	총 금액	1,900
승 주	8,200	도 포함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